

웹소설 『재벌집 막내아들』의 매체 전환 양상과 그 의미

구자준 (연세대학교) / somina1999@gmail.com

웹소설 『재벌집 막내아들』의 설정

순양 그룹의 ‘머슴’ 윤현우는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운반하다가 희생양이 되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다. 하지만 죽음의 순간 30년 전인 1987년으로 회귀한 윤현우는 순양가의 막내 손자 ‘진도준’의 몸에 빙의한 채 다시 깨어난다. 진도준이 된 윤현우는 예정된 진도준의 죽음을 막고, 윤현우였던 자신을 죽게 만들었던 진도준의 친척들에게 복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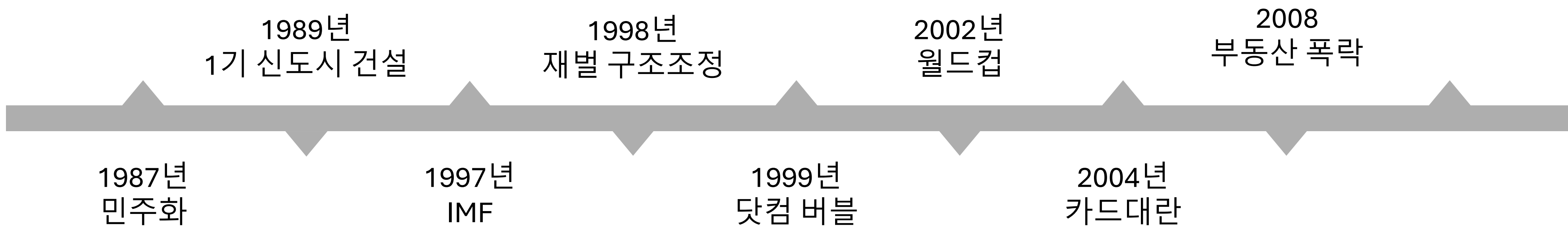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 대한 논란

웹소설의 ‘재벌집 막내손자’ 진도준이 불의의 트럭 사고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진도준으로 성공하는 것과 달리, 드라마는 거둬들인 트럭 사고로 인해 진도준이 끝내 죽고, 주인공은 다시 윤현우의 삶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결말은 진도준의 삶을 응원한 시청자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너무 과감한 결말이었기에 정작 드라마가 왜 웹소설의 결말을 바꾸고자 했는지는 깊이 논의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드라마는 왜 웹소설의 결말을 바꿨을까? (“왜 트럭은 두 번 달려와야 했는가?”)**

+ 결말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주목 받지 못한 웹소설과 드라마의 다른 차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드라마 11화, 15화



웹소설이 약속하는 것과 드라마가 거부하는 것

웹소설의 진도준은 미래정보를 바탕으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미래를 ‘조심스럽게’ 바꿔야 하지만, 원래의 진도준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죽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운명의 날, 할아버지인 순양의 총수 진양철과 함께 군산으로 향하던 진도준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트럭과 마주친다. 진도준은 허망함을 느끼며 의식을 잃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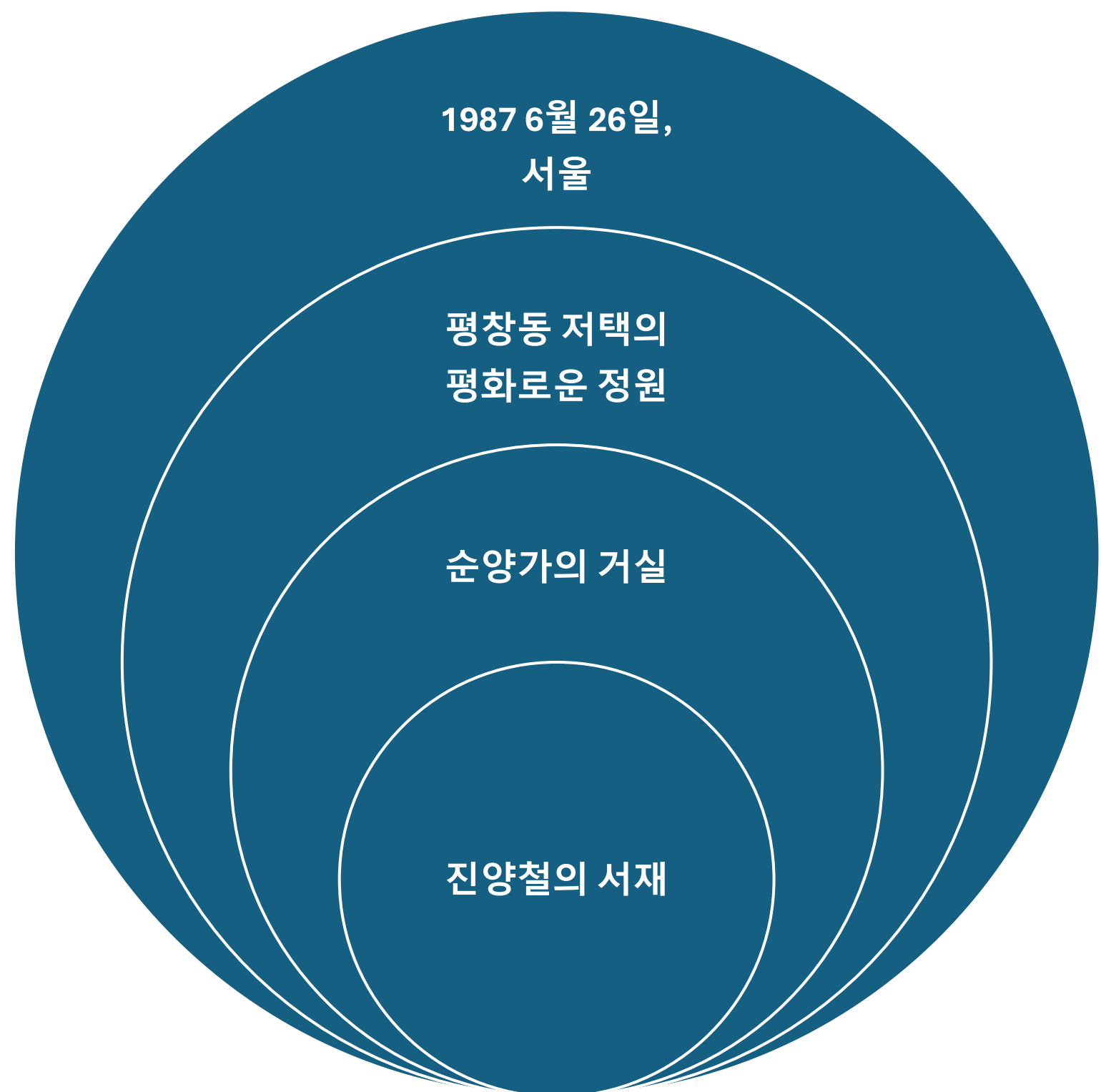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동안 회귀자가 만든 작은 변수들로 인해 할아버지와 진도준 모두 사고에서 목숨을 건지고, 살아난 진양철을 보며 진도준은 “이 분은 나의 친할아버지며 나는 친손자”(101화) 임을 스스로 확인한다. 하지만 그가 그제서야 육친의 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이제 다시는 윤현우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트럭사고를 통해서야, 진도준은 마침내 ‘이 모든 것이 죽기 직전의 찰나에 빠진 기묘한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웹소설 <재벌집 막내아들>은 장르소설의 전형적인 클리셰를 변형하여 꿈과 각성에 관한 자신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한다. **<재벌집 막내아들>이 제공하는 ‘끝없이 이어지는 꿈’ 속에서 진도준은 결코 패배하는 일 없이 승승장구하며 반드시 순양가의 총수가 될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드라마가 진정으로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재벌에 대한 환상보다는, 그 환상을 결코 건드리지 않겠다는 웹소설의 바로 이 약속이다. 단지 환몽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빙의자가 처음의 트럭사고 때 현재로 돌아오거나, 혹은 처음의 트럭 사고를 건너뛰고 마지막 사고만을 보여줘도 상관없었을 것이다. 드라마는 굳이, 처음의 사고를 통해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모두 버릴 수 있었던 진도준에게 재차 트럭을 보낸다. 너가 꿈에서 깬 때까지 이 모든 것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듯이, 환상에서 깨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환상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상적인 웹소설과 실재를 드러내는 드라마가 대립한다고 이해할 수는 없다. 여기에는 웹소설이 제공하는 꿈 그리고 이와 대립하는 드라마의 또 다른 기만만이 존재한다. 이때 **드라마의 기만은 1987년이라는 현재 한국사회의 ‘기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1987년 6월 26일이라는 웹소설의 회귀 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화 혹은 올림픽

웹소설의 생일 잔치



주인공의 회귀/빙의 직후, 웹소설에서는 진양철이 독재 정부 혹은 민주 세력 중 **어느 편에 ‘투자’할 것인가**를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지만, 핵심에 위치한 측근과 아들조차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헤매고 있다. 그렇기에 진도준은 자신의 ‘독기’를 드러내며 진양철의 서재로 힘들게 진입한다.



반면 드라마는 1987년 10월 시점으로 회귀한 주인공을 보여줌으로써, 민주화 대신 **곧 도래할 올림픽을 통해 1987년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진양철 역시 협잡에 참여하는 주체로 그려지는 대신, 올곧은 경영인이지만 부당한 정치 권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려진다. 진도준 역시 ‘독기’ 대신 ‘자질’을 보여주며 1987년부터 시작된 거래를 모른 척 할 수 있다.



웹툰 <재벌집 막내아들> 2화

“성준이 너는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가 이 순양의 주인이 될 아다. 응? 니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직원 10만 명의 밥줄이 걸려 있다. 니가 그놈아 가족들의 생명 줄이라 이 말이다. 그런 아가 감정 조절도 제대로 못 하고 지 멋대로 설치는 게 **경영인**, 순양그룹의 후계자답지 못하기 때문인 기라.”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2화